

치유 · 회복공간으로 '재탄생'

익산 장점마을, 훼손된 공장부지... 자연 · 사람 공존하는 생태 서식지로 발돋움

익산 장점마을이 오랜 상처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국비 65억원을 확보해 그동안 발안물질 배출로 주민들과 환경을 병들게 한 장점마을 인근 폐비료공장 부지 일원에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축 복원사업은 인위적으로 훼손·단절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의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해 생물서식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현안 문제 해결의 실현공간과 지역주민들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2024년까지 공장 부지를 치유·회



복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완공될 치유의 숲과 합라산 등산로를 연계한 생태 탐방로, 야생동물 이동통로, 생태학습장 등과 함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권 생태공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익산시는 전라북도도와 함께 16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환경오염사고 후속대책으로 14개 종합대책사업을 발굴했으며 마을주민복지센터·보건진료소 건립, 가구별 LPG 설치, 태양광

보급 등 장점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보건 의료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유사한 환경오염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해 장점마을 백서를 제작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수달 가족이 장점마을 주변에 목격되는 등 생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탄이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다시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회복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시정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과관리(BSC)운영 코칭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군산시”

군산시 성과관리(BSC) 운영 위한 코칭 실시

군산시는 시정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과관리(BSC)운영 코칭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시청 지하 민방위 상황실에서 읍면동을 제외한 전부서(47개) 성과관리 담당자 및 계장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코칭을 실시했다.

원활한 코칭을 위해 앞서 지난 3월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시 비전과 전략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 설정, 중장기적 전략과제 선정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체계적 성과지표 구축을 위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부서별 코칭은 2022년도 성과지표 개발 및 실행과제 선정과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외부 전문가(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기현 교수 외 5명)가 시 주요업무 및 성과예산, 합동평가과제 등을 검토 후 자문하는 등 부서별 성과지표를 연계, 객관적이고 적절한 성과지표와 목표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성과관리란 군산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관리하는 활동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편된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행정 실현이 기대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공공분야의 성과관리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는 필수이며,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체계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군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보건의 날 종사자 격려 · 유공자 표창

익산시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건의료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오랫말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제5회 보건의 날을 맞아 직접 방역 현장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지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우리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등 1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표창 전달 이후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모두의 행복을 다짐하는 코로나19 극복 건강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건의 날은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창립기념일을 '세계 보건의 날'로 제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1978년부터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청년들, 릴레이 창업특강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들(창업센터)은 창업에 관심있는 군산시민과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4월 6일, 8일, 10일 중 각 1회씩 릴레이 창업특강을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원스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릴레이 창업특강은 화차별 신청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온·오프라인 교육을 동시 진행할 계획이며 많은 (예비)창업가의 실질적인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창업특강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유투브를 활용한 마케팅 및 저작권 기초'를 주제로 진행되며, 격월로 진행되는 특강은 (예비)창업가의 수요 및 지원사업 시기에 맞춰 ▲블록체인(가상화폐 및 NFT)기술적용 창업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창업), ▲창업자금 확보 등에 대한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군산시 청년들 홈페이지나 청년들 창업센터 전화(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찾아가는 기관합동 서민금융 이동상담센터 운영

군산시, 서민 금융 · 취업 · 복지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군산시의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운4단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찾아가는 기관합동 서민금융종합상담'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나운2동)는 금융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 주력관립공단(미이홀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생계비 대출 및 채무조정, 복지, 취업, 정신건강 등 분야별 상담을 진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이동상담은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금융 맞춤대출, 복지연계, 휴먼예금 지급 조회 등 서민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다.

이동상담은 금융 관련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실제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상담을 원하지만 상담참여에 고충이 있던 이들에게 보다 손쉽게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일일상담에 참여를 못한 경우 1397 서민금융 통합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군산시 조촌로 6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로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행복 센터장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 군산 지역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1월 개소 이래 지난달까지 총 17,300여명이 방문하여 약 391억 원을 지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군산형 청년수당' 참여자 100명 모집

군산시는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군산형 청년수당' 참여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산형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지역은 주민등록상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18~30세 최종학력 졸업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구직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 중 소득, 미취업기간

등의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청년수당을 지원받으며, 지원기간 동안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군산시청년탈취업프로그램 이수 등의 무사함을 준수해야 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군산시 일자리정책과로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

문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 및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454-438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취업난 속에서 지역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빠른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것이며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식목일 맞아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호응'

익산시가 지난 8일 제7회 식목일을 맞아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내 나무 갖기 행사에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유실수(매실나무, 자두나무 등 3종)가 준비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시민에게 1,880주의 나무를 분양한다.

읍·면 지역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 거주자는 배산살내체육

관 주차장(김동문 배드민턴장에서 일괄 수령 가능하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식목일을 맞아 내 나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기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익산시가 매년 시행해 온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은 “이번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